

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자료	 대한민국 대전한 한국판뉴딜
2021년 12월 2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28.(화) 오전 11시 20분 이후 보도 가능)		
배포일시	2021. 12. 28.(화)	담당부서 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윤성혁 과장(044-203-4210)	담당자 김남혁 서기관(044-203-4211) 김효선 사무관(044-203-4212) 조우신 사무관(044-203-4215)

2022년 정부 업무보고 “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,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” 「함께 극복·도약하는 산업강국」 실현 -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발표 -

I.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

- (에너지) ①재생에너지 인허가 혁신, ②안정적 전력망·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
③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(수소법 개정), ④회소금속 등 비축 확대(100일)
- (산업) ①탄소중립 핵심기술 에타(6.7조원), ②「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」 제정 추진
- (포용) ①중소·중견 선제적 재편지원, ②저탄소 상생형일자리 확산

II.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

- (주력) ①친환경차 기술초격차 지원, ②저탄소·고부가 철강·화학소재 확보
- (신산업) ①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, ②첨단 반도체 R&D 및 투자지원 확대
③백신허브 도약 위한 생태계 보강, ④배터리 재활용 실증기반 구축
- (혁신기반) ①「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」 이행, ②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착수,
③다수인증(5개 품목) 원스톱 지원, ④월드클래스+ 등 중견기업 지원

III.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

- (핵심품목) ①고의존 품목 대상 조기경보체계 구축, ②수급 안정화 조치 강화
- (전략산업)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」 제정·시행으로 육성·보호 강력 지원

IV.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

- (수출) ①무역금융 175조원 공급, ②물류·국경이동 애로 해소 총력 지원,
③서비스 무역 범위의 전면 확대(「대외무역법 개정」)
- (외투) ①제1호 첨단투자지구 지정, ②국가전략기술 대상 투자 인센티브 확대
- (통상) ①공급망·디지털·보건 등 전략분야 통상 선도 ②국가별 맞춤형 경험 강화

I. 업무보고 개요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12.28일(화)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함
- 지난 4년 반동안 日 수출규제, 코로나19·공급망 충격 등 여러 위기와 그린·디지털 혁신 등 변화의 요구 속에서 **민관이 함께 대응해왔으며**, 우리 경제의 **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**을 위한 준비를 **착실히 추진**
- 2022년에는 “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,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”를 모토로 “함께 극복·도약하는 산업강국” 실현을 위해 총력 다할 계획

II.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

◆ 위기 속에도 산업·무역강국 위상을 지키며 착실히 미래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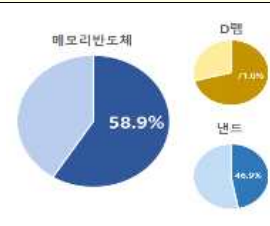
산 업

- 소부장 위기극복과 주력·신산업 육성으로 **경제활력 회복**을 견인
- (소부장) 日수출규제에 민·관이 뭉쳐 강력 대응*하여 100대 품목 대일의존도가 개선(6.3%p↓)되고 **소부장 기업 성장 가시화****
* 3조원+ R&D(19~21년), 특별법·회계(20년) 등, ** 으뜸기업 시총 3배↑(19.7월→21.9월)
- (주력산업) 「제조업 르네상스 전략(19.6월)」에 기반한 혁신으로 메모리·고부가船 1위(21년), 車생산 5강(20년) 등 **제조강국 위상전지**
- (신산업) BIG3 신산업을 “포스트 반도체”로 집중 육성하여, **비약적 수출 확대**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

< 100대 품목 대일의존도 >



< 반도체 세계점유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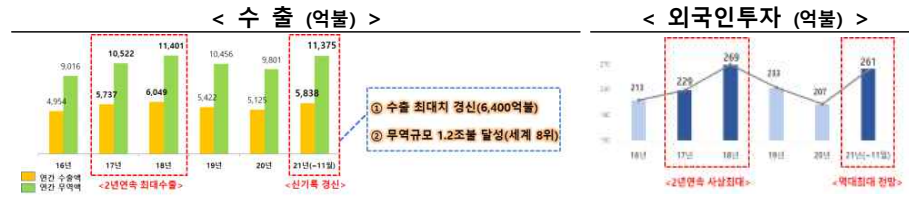


< 빅3 신산업 수출(억불) >



무역

- 우리 산업의 저력을 토대로 역대 최대 수출·외국인투자 달성
 - 무역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물류·기업인이동 등 현장애로 집중 지원
 - 올해 연수출 최고치 경신과 함께 11월 수출 최대(21.11월 600억불 초과), 최단기 무역1조불(299일), 9년 만에 세계무역 8강 등 신기록 양산



에너지

-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'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'의 초석 마련
 - 재생에너지 확산과 석탄발전의 감축으로 청정e 전환을 본격화
 - 수소 로드맵 수립, 수소법 제정 등을 통해 세계 1위 수소생태계 구축



통상

- 신항시장 경제협력* 및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확대(21년, 세계 GDP의 85%)
 - * (신남방) 베트남(車전자), 인니(車배터리) 등, (신북방) 러시아(조선수소), 우즈베크(디지털헬스)
 - 세계 최대 FTA인 RCEP과 인니·필리핀·캄보디아 FTA 타결로 신남방 FTA 네트워크 완성 및 한국 최초 디지털 협정(한-싱 DPA) 타결



Ⅲ. 2022년 업무계획

- ◇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혁신으로 新시대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도약
- ◇ 공급망 안정화와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빈틈없는 경제안보 구축

①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

- ◇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며 에너지·산업 대전환을 견인

- (에너지)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, 수급안정도 철저히 관리
 - (전환)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·법제화하고, 풍력 원스톱삽 도입 등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 - (계통) 신재생 확산에 맞춰 안정적 전력망·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
 - *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 수립(22.上),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(23) 등 체계 마련
 - (수소) 생산·유통·활용 등 전주기 수소생태계 성장을 촉진
 - * (생산) 국내 생산기지(~23년 3개소) + 해외 공급망 구축, (유통) 액화수소 설비 구축, (활용) 수소법 개정을 통한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 추진
 - (수급) 광물·석유 비축* 및 가스 중기계약 확대 등 자원공급 안정화
 - * (광물) 희소금속 비축일수 확대(56.8→100일), (석유) 정부비축유 47만 배럴 추가 확보
- (산업)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며 민간투자도 적극지원
 - (기술)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 2배 확대* 및 대형 예타** 추진
 - * (21년) 2,130억원 → (22년) 4,135억원 ** 수소환원제철, 바이오원료 전환 등 6.7조원
 - (투자)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*를 확대하고, 융자 등 자금 확보**를 지원
 - * 「조특법」상 신성장·원천기술 반영, ** 22년 1,500억 규모 특별융자 추진
 - (거버넌스) 「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」 제정으로 “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”을 제도화하고, 정책적 소통으로 유연한 정책보완 추진
 - * 산업부문 기본계획 수립, 전환 촉진, 신시장 창출, 특례 등 근거 마련
- (포용) 중소·중견 맞춤 지원*과 초광역권 전략 산업 선정·지원 등을 통해 중소·중견, 지역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
 - * 범부처 협력 → 클린팩토리 보급, 넷제로 유망기업 융자, 종합컨설팅, 바우처 등

②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

◇ 친환경·디지털 등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

□ (주력산업) 저탄소·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내실 있는 성장 견인

- ① (조선) 세계1위 수주에 맞춰 공정·설계·인력 등 건조역량 확충
* (공정) 스마트야드 예타, (설계) 무탄소선박R&D 등, (인력) 3,000명 양성 착수
- ② (철강) 전기·수소 시대에 대비한 생산공정·고부가제품 개발
* (공정) 고로 기반 수소환원제철 개발 등, (제품) 수소용 프리미엄 철강 개발 등
- ③ (화학) 미래 공급망 선점 저탄소·고부가 화학소재 확보 지원
* (저탄소) 바이오플라스틱 등, (고부가) 고성능 합성고무 개발 예타 추진 등
- ④ (기계) 무공해 기계 개발* 및 장비·로봇간 융합 확산** 추진
* 전기식 건설기계 충전인프라, 수소엔진 등, ** 표준모델 개발(22년 8개) 등

□ (신산업) 수요 창출과 민간투자 촉진으로 신산업 고성장 촉진

- ① (미래차) 구매목표제 본격시행*, 편의개선** 등 수요기반 지속 확충
* (안) 대기업·렌터카 13% 등(22.1월~), ** 아파트 등 충전기 설치의무 강화
- ② (반도체) 세제지원 강화* 등 첨단반도체 기술·시설투자 활성화
* 국가전략기술(시설투자 10~20%, R&D투자 40~50%) → 21.하반기 투자부터 적용
- ③ (바이오) 백신허브 도약 위한 생태계* 강화 및 유망바이오** 육성
* 백신원부자재 R&D 신설, 공정인력 양성(22~26년 1,200명) ** 화이트바이오, 헬스케어 등
- ④ (배터리)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*, 고성능·고안정 기술혁신** 추진
* 재활용 실증센터 구축, 사용후이차전지 개발, ** 기술개발 예타 추진

□ (혁신기반) 디지털, 기술, 표준·인증 등 산업생태계 혁신기반 확충

- (디지털) 「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」 이행* 및 100대 선도사례 발굴
* 하위법령 제정 및 산업디지털전환 위원회, 종합계획, 실태조사 등 추진
- (기술) 알키미스트 프로젝트* 착수로 도전·혁신적 기술확보 지원
* (분야) 혁신성·파급력 등 고려, 3개 신규테마 선정(22.1월), (규모) 22~31년, 4,142억원
- (표준·인증) 유망 분야* 국제표준 선점 및 다수인증 편의개선**
* 탄소중립·디지털·K-방역 등, ** 필수품목 5개 발굴 → 원스톱 인증체계 구축
- (중견기업) 월드클래스+, 인력양성, DX 등 중견 맞춤형 지원확대
* 중견 맞춤형 지원예산 : (20년) 690억원 → (21년) 975억원 → (22년) 1,096억원

③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

◇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안보 실현

□ (핵심품목) 공급망 병목요인 점검을 통한 핵심품목 수급관리 강화

- 대외 고의존 품목* 대상으로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** 구축

* 대외 고의존 품목 중 관리시급성·산업중요성 등 높은 품목 중점 점검

** (해외) 공관 중심 「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」에서 현지동향 정례보고
(국내) 업종별 협회, 주요 수입기업 등과 협력해 우려품목 수급 분석

- 경제안보 핵심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축확대, 수입선다변화,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로 맞춤형 안정화 기반 마련

□ (전략산업)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*」 근거 전략산업 강력 지원

* 발의법안이 법사위 계류 중이며, 조속한 국회통과를 전제로 22.하 시행 추진 중

- 국가첨단전략기술*과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, 생산시설·R&D 투자 인센티브 등 전폭적 지원근거 마련

* ①경제안보 영향, ②연관산업 파급효과, ③국민경제 영향 등을 감안 기술 지정

- 전략기술 수출·M&A 사전승인 의무화, 전문인력 관리 강화*, 「제4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**」 수립 등으로 기술·인력 유출 방지

* 전문인력 동의 시 해외기업 이직제한, 비밀유출 방지, 퇴직 후 재취업 정보제공

** ①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지정 확대, ②핵심인력 DB화, ③협력업체 관리 강화

□ (소·부·장) 기술자립과 연대·협력에 바탕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

- 대규모 기술투자*와 함께 수요-공급사 협력에 기반한 실증 지원

* 주력산업 고도화(27개), 신산업 창출(38개) 등 6,500억원 투자(22~24년)

- 으뜸기업 추가 발굴(年 20개)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* 본격화

* ①R&D 우대, ②입지 등 규제완화, ③용수·전력 등 인프라 구축

4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

◇ 전략적 대응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

□ (수출) 수출 6천억불 정착과 함께 7천억불+a 시대에 도전

- 최대현안인 물류애로 해소를 끝까지 지원*하고,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**도 지속 지원

* 선복확충, 운임지원, 해외 공동물류센터 추가 등, ** 기업인출입국지원센터 연장(~22.12월)

- 「대외무역법」 개정으로 서비스·디지털 무역의 범위를 확대*하고, 지원근거도 법제화하여 신무역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

* 서비스무역 범위 : (現) 지식서비스 등 18종 제한적 열거 → (改) 전업종으로 확대

□ (외투) 외국인투자의 양적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병행 추진

-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외투 인센티브* 보장, 100대 핵심 기업 맞춤형 IR 전개 등 전략적 유치 강화 및 제1호 첨단투자지구 지정

*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대상 현금지원한도·국비분담률 상향, 임대료 100% 감면 추진

□ (통상) 5대 新통상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통상 파트너십 지속 강화

- 공급망·기술·디지털·백신·기후변화 등 국제 논의를 주도적 추진

* (공급망) 핵심기술 및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 추진 (기술) 수출통제, 외투심사 등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AI, 6G 등 신기술 국제표준 선점 노력 (디지털) DEPA 등 가입협상 타결,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선제적 제도개선 등 (백신·기후변화)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, EU CBAM 대응, 통상협정 통한 NDC 국제감축 지원 등

-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토대로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

* (新남방) 핵심 소부장, ODA 기술교류 등, (新북방) 수소 등 9개다리, 핵심광물 등 (미국) 첨단산업 공급망, 친환경 에너지, (유럽·대양주) 영해상풍력, V4배터리 등

- 사회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, 중남미·중동·아프리카·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 가속화

* 중남미(멕시코·메르코수르), 중동(GCC), 아프리카(이집트), 신북방(러시아·우즈베키스탄·EAEU)

【붙임】 “2022년 이렇게 바꿉니다.”

【별첨】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본 보고서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김효선 사무관(☎ 044-203-4212), 조우신 사무관(☎ 044-203-42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 붙임 > 2022년 이렇게 바꿉니다.

I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

기업지원

- ▶ 탄소중립 R&D 1.2조원 투자
- ▶ 선도프로젝트 1,500억원 특별융자
- ▶ 사업재편 전용펀드 500억원 조성

초광역권 프로젝트

- ▶ 대경·세종·전북 전기차
- ▶ 호남권 신재생에너지
- ▶ 강원·충청·제주 수소·재생에너지
- ▶ 동남권 수소 기반 친환경산업

II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

반도체

- ▶ 메모리 + 시스템 수출 1300억불

미래차

- ▶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충전기 설치
- ▶ 자율주행 레벨3 국내 출시

조선

- ▶ 조선 수주 1위
- ▶ 인력 3천명 양성

바이오

- ▶ 백신허브 도약
- ▶ 수출 200억불

이차전지

- ▶ 배터리 세계 1위
- ▶ 재활용 실증센터 구축

로봇

- ▶ 8대 거점 실증
- ▶ 규제혁신 로드맵 2.0 수립

III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실현

핵심품목

- ▶ 100대 품목 관리 (법부처 합동)
- ▶ 조기경보체계 구축

전략산업

- ▶ 특별법 제정·시행
- ▶ 인허가·예타 특례

소부장

- ▶ 으뜸기업 20개 선정
- ▶ 5대 특화단지 지원

IV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

수출 최고치 재차 경신



주요국 통상협력 강화

